새가 허공을 흔적 없이 날 듯…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9〉

범어사 주지

수도(修道)란

배휴가 물었다.
"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도가 무엇이기에 수행하려 하느냐?"
"제방의 종사가 서로 계승하여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둔근기(鈍根機)를 이끌어 주는 말이니 의지할 것이 못된다."

도를 깨닫고 난 뒤에도, 배휴에게는 아직 근심이 남아있다. 여태까지 닦으려고 노력하다가 황벽 스님을 만나서 몰록 돈오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묻는 것이다. 그런데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소화를 못하고 황벽스님께 계속 묻는다. 황벽 스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줬음에도, 배휴는 아직까지 닦아야 한다는 습관이 떨어지지 않아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닦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인과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도는 마치 깜깜한 밤에 물을 뿌리면, 아무리 어두워도 물 스스로가 높고 낮음에 따라 알아서 가는 것과 같다. 일부러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둔근기를 위한 말이라고 하신다면, 상근기(上根機)를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하시는지요?"
"상근기라면 어디 남에게서 찾으려 하겠느냐? 저 자신도 얻지 못하거늘, 어디 구미에 맞는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경전 중에 이르기를, '법이라고 하는 법이 대체 무슨 모양이더냐?'고 한 말씀을 보지 못했느냐?"

'무사자오(無師自悟)'라고, 눈 연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 '아라한과'만 증득해도, 스승 될만한 눈높이를 갖춰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배휴는 아직까지 꼭지가 덜 떨어져서 자꾸 묻고 있다. 대답을 기다려, 하라는 대로 수행해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도는 닦아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순간에 '이것을 등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만 확인하고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내려놓으라'는 말도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 갖다 붙인 어리석은 말이다.

도 닦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대각(大覺)에 들기 위해 부다가야에서 고행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 정도 근기에 있는 사람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난행, 고행'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닦아서 증득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은 그때의 인연이고, 닦음을 가지(加持)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때의 인연이다.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어떤 말도 소화해내지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훤칠하면 흔들릴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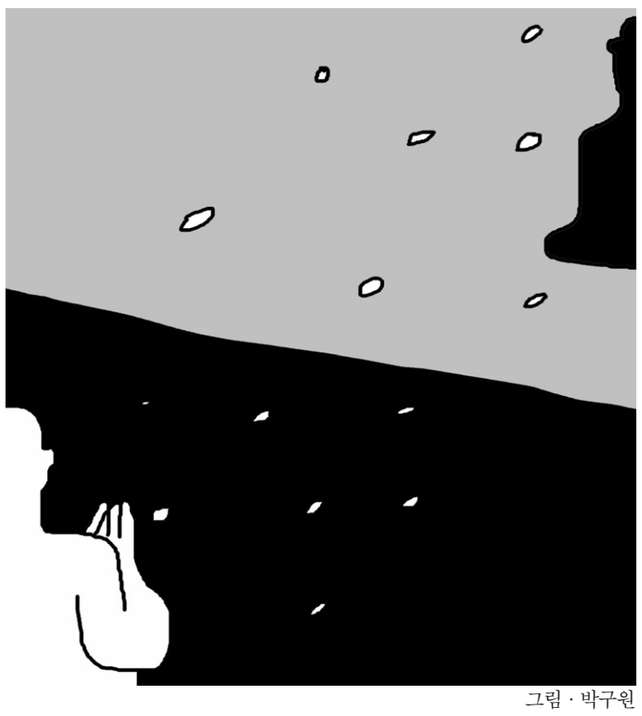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道'는 깜깜한 밤에 물을 뿌리면
스스로 높고 낮음 따라 가는 것

'法'이 대체 무슨 모양이더냐?
깨닫는 순간 내려 놓으면 그만
'내려 놓으라'도 어리석은 말

"이 법은 허공과 같습니까"
"허공이 언제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하더냐"

공부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법을 설한바 없이 설하고
들은바 없이 듣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의 수고로움을 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 무(無)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 그것이 대관절 무엇이기에 너는 찾으려 하느냐?"

그냥 온통 그러한 이 일 이외에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미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끊지도 말라 하십니까?"
"찾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인데, 누가 너더러 끊으라 하였느냐? 눈앞의 허공을 보아라. 어떻게 저것을 끊겠느냐?"

끊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허물이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이다. 모른다고 해서 찾고 구하는 것도 허물이다. '도'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 끊어 없앨 것도 없고, 찾고 구할 것도 없다. 그저 흐름에 맡기고 시간 보내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 법은 곧 허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허공이 언제 너더러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하더냐? 내 잠시 이렇게 말하니, 너는 당장 여기에 알음알이를 내는구나."

말에 끄달려서 알음알이를 낼 것 없다. 공부가 훤칠한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법을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들은 바 없이 듣는 모습이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입을 빌어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지만, 허망한 소리다.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도, 주변에 수없이 많은 보살이나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그 기운이 한없이 뻗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까?"
"내 일찍이 너를 방해한 적은 없다. 요컨대 알음알이란 뜻[情]에 속한 것으로서, 뜻이 생기면 지혜는 막힌다."

알음알이를 내든 내지 않든, 분별할 것이 없다. 본래 알음알이가 없는 것인데, 번뇌망상이 보리열반과 둘이 아님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 짓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다. 잠시 인연 따라 일어난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을 없애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때 되면 나타나고, 때 되면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분별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뜻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뜻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느냐?"

하루 종일 새가 허공을 날아도 흔적이 없듯이, 그렇게 마음을 쓰라고 했다. 뜻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뜻을 일으키면 큰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거대한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내려놓으면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흔적 없이 소화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일으키는 동안에는, 분별이니 분별 아니니 따지는 어리석음을 지을 필요가 없다. 수도 없는 생각을 일으키다가도, 한 생각 돌이키면 그저 그만인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㊾

그 나라의 중생들은 어떤 고통도 없으며
다만 즐거움만을 누리므로 극락이라 한다.

〈아미타경〉

극락에 서서

지금 우리에게는, 극락은 참으로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되기 쉽다. 피부에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도대체 극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존재하기나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극락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극락은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터에 극락에 가고 싶어지겠는가.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극락에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니, 이미 극락에 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해보는 것이다. 그분들은 무엇이라 말할까? 그 대답에 대해서는 비유를 하나 들어서 상상해 보자.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 혹은 어떤 이유로든 다른 나라로 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많은 새터민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물어보자. 당신이 살아왔던 옛날 나라로 다시 돌아가겠는가? 그래, 돌아가겠다고 할 사람도 없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수한 사례일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을까.

"정말 싫다. 다시 그런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세계는 두 번 다시 살고 싶지 않다. 두 번 다시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내게 그런 것 묻지 말라." 이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분에게는 그 나라에서의 기억이 온통 고통스런 빛깔로 칠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밝은 색으로 칠하고 싶다. 애당초 바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는가.

고락반반(苦樂半半)은 고통이다

옛날 나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염리심(厭離心)이다. 싫어해서, 그곳을 떠나려는 마음이다. 그런 염리심이 있지 않다면, 극락에 가고 싶다는 마음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땅에도 괴로움은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어떤가?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나름의 행복을 느낄 수는 있다. 사바세계라고 해서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즐거움도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반인 경우는 즐거움이라 말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에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괴로움은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나라를 희구(希求)할 일도 없을 것이다.

가끔 맛볼 수 있는 기쁨, 즐거움, 혹은 행복은 극락(極樂)이 아니다. 지극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말이다. 왜 그럴까? 그런 기쁨, 즐거움, 혹은 행복 사이사이에 갖가지 괴로움이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기습해 오기 때문이다.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는 순간에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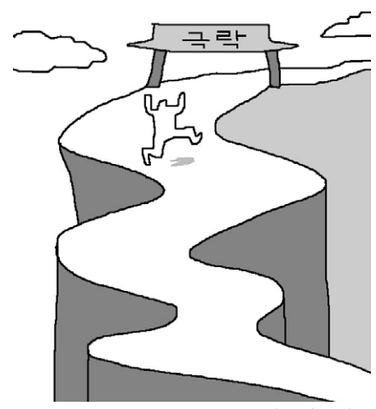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우리의 희망과는 전혀 반대로 말이다. 늙지 않고 싶은데, 늙는다.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든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게 된다. 미운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게 된다. 죽고 싶지 않은데, 죽는다. 이러한 괴로움이 존재하는 터에, 어찌 잠깐 찾아오는 작은 기쁨이나 행복을 즐거움이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교이다. 그런 정도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완벽한 즐거움의 세계로 가고 싶다. 그런 세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희망이 간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생들의 희망을 하나하나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이다. 그 희망들을 다 받아들여서, 극락세계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미타불이시다.

나무아미타불!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고문단

수석고문대한불교 조계선종
상임고문(사)국제승가 법왕청
고 문 (사)대한불교 태종사
세계불교 세심종
한국불교 태고종
(사)한국불교 정토종
(사)한국불교 삼론종
(사)대한불교 선종
(사)민족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임제종
대선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지종
대한불교 달마선종
대한불교 교화선종
세계불교 법륜종
한국불교 원각종
한국불교 일광종
한국불교 조계종
현대불교 조계종
도솔천 유마종
교단 용화불교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사)대한불교 해동종
대한불교 광명조계종
대한불교 아미타여래종
한국불교 해심 조계종
(사)대한불교 승가종
(사)대한불교 해인종

만웅 석도일 종정 큰스님
보광 박영래 법황 큰스님
명공 이도성 조실 큰스님
무변 성황 큰스님
원묵 박종숙 원로 큰스님
지산 김노 이사장 큰스님
석봉 전석파 종정 큰스님
효담 박호영 이사장 큰스님
법보 정가우 종정 큰스님
용화 나인식 종정 큰스님
동산 문용호 종정 큰스님
일공 정정수 종정 큰스님
현광 김용익 종정 큰스님
혜명 석혜명 종정 큰스님
법광 강영수 종정 큰스님
혜철 이병출 종정 큰스님
혜우 원종택 종정 큰스님
정암 박우렬 종정 큰스님
만공 김연수 종정 큰스님
무해 김길수 종정 큰스님
천강 김범열 종정 큰스님
혜륜 이윤식 종정 큰스님
해붕 최정웅 종정 큰스님
진공 김완길 종정 큰스님
의천 최상복 종정 큰스님
무진본 최영태 종정 큰스님
월인 강습득 종정 큰스님
해지 천해원 종정 큰스님

총재단

명예총재
(재)한국대승불교여래종 **인왕** 신판석 종정 큰스님

총 재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의륜** 서주범 본회이사장 큰스님

수석부총재
대한불교 열반종 **해곡** 이해근 종정 큰스님

부 총 재 대한불교 대원종 **정허** 안신풍 종정 큰스님
대승불교 조계종 **법각** 지오 장무송 창종주 큰스님
임제불교 조계종 **적진** 지암 김영홍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 해탈조계종 **대광** 문진열 종정 큰스님
(사)한국불교 조계종 **대봉** 이종수 충무원장 큰스님
대한불교 불광종 **청원** 박수웅 종정 큰스님
(사)대한불교율사 조계종 **청파** 안종억(종정대행) 큰스님
국제선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상경찬 종정 큰스님
세계불교 평화종 **고명** 김춘석 종정 큰스님
대한선불교 조계종 **용담** 김무홍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선종 **혜원** 김창관 종회의장 큰스님
한국불교 미륵선종 **혜일** 윤중희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 위앙종 **위산** 청해 박인혜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 해동종 **송산** 이종완 총무원장 큰스님
대한불교 무량종 **혜안** 정동식 종정 큰스님
선불교 조계종 **대응** 이금철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 대각종 **만청** 이창배 종정 큰스님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지공** 엄외출 장로원장 큰스님

회장단

회 장 (사)대한불교원각조계종 **청운** 박청운 종정 대종사
상임부회장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용주** 권용원 종정 대종사
수석부회장 한국불교 대불종 **만주** 조성수 총무원장 대종사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청학** 송원진 총무원장 대종사
대한불교 선각종 **정암** 마승이 총무원장 대종사
총남불교 조계종 **청암** 도한수 종정 대종사
(재)한국불교 조계종 **보현** 서만득 총무원장 대종사
부 회 장 한국불교 자비종 **해광** 전충열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불교 대승법사종 **지일** 박상갑 종정 대종사
한국불교 반야종 **지법** 한재환 총무원장 대종사
호국불교 효예종 **법진** 신승도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불교 구산선문회 **법장** 최재호 총무원장 대종사
회천법계 천일종 **법혜** 박수종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불교 전법조계종 **일웅** 김철우 총무원장 대종사
대한불교 법계종 **청산** 김규섭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건강진흥원 **범부** 운담 종정 대종사
(사)대한불교 수미산문 조동정종 **정림** 석정림 총무원장 대종사
우리불교 조계종 **현불** 이창수 대종사
실 무 의 장 국제불교 조계종 **법천** 유일수 총무원장 대종사
사 무 총 장 (재)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설송** 석혜운 대종사
사 서 실 장 (재)한국근본불교 조계종 **해안** 조현종 대종사

법인이사회이사장 설악산 불탑사 회주 **의륜** 서주범 대종사
이 사 남한산성 청운사 회주 **청운** 박청운 대종사
아산 만주사 회주 **만주** 조성수 대종사
서울 송림사 주지 **현오** 성부경 대종사
설악산 동해사 주지 **무일** 금숙희 스님
감 사 본 회 임 원 **도광** 천명섭 이사

공동의장

다정 큰스님 / 법각 큰스님 / 법민 큰스님 / 원담 큰스님
법천 큰스님 / 고석 큰스님 / 대한 큰스님 / 관행 큰스님
청담 큰스님 / 도룡 큰스님 / 화엄 큰스님 / 무성 큰스님
법정화 큰스님 / 도열 큰스님 / 청호 큰스님 / 해운 큰스님
무학 큰스님 / 철산 큰스님 / 경암 큰스님 / 일강 큰스님
도암 큰스님 / 경원 큰스님 / 성인 큰스님 / 법정 큰스님
덕암 큰스님 / 범홍 큰스님 / 청산 큰스님 / 법상 큰스님
혜자 큰스님 / 해월 허공 큰스님 / 도운 큰스님 / 혜자 큰스님
죽암 큰스님 / 왕인 큰스님 / 불광 큰스님 / 법장 큰스님
일오 큰스님 / 법안 큰스님 / 법안 큰스님 / 혜광 큰스님
지법 큰스님 / 법진 큰스님 / 혜인 큰스님 / 지공 큰스님
문수 큰스님 / 은성 큰스님 / 묘찬 큰스님 / 법일 큰스님
법정 큰스님 / 법득 큰스님 / 대천 큰스님 / 대성 큰스님
청암 큰스님 / 정오 큰스님 / 연화 큰스님 / 월천 큰스님
호연 큰스님 / 회광 큰스님 / 영월 큰스님 / 조연 큰스님
혜지 큰스님 / 대천 큰스님 / 능인 큰스님 / 원공 큰스님
태함 큰스님 / 원각 큰스님 / 성운 큰스님 / 도광 큰스님
법룡 큰스님 / 동원 큰스님 / 법일 큰스님 / 정산 큰스님
해원 큰스님 / 구암 큰스님 / 수원 큰스님 / 혜륜 큰스님
월인 큰스님 / 대원 큰스님 / 용아 조연 큰스님 / 조윤심 큰스님
성허 큰스님 / 향덕 큰스님 / 법우 큰스님 / 한불 큰스님
황정 큰스님 / 월단 큰스님 / 억조 큰스님 / 혜봉 큰스님
혜원 큰스님 / 해광 큰스님 / 동관 큰스님 / 김재연 큰스님
무진본 큰스님 / 정안 큰스님 / 법륜 큰스님 / 송정 큰스님
정일 큰스님 / 유화 큰스님 / 한울 큰스님 / 덕정 큰스님
각화 큰스님 / 대원 큰스님 / 은곡 큰스님 / 일형 큰스님
전인 큰스님 / 현성 큰스님 / 정림 큰스님 (무순)
해곡 큰스님 / 해만 큰스님 / 덕용 큰스님

〈〈 본회 가입안내 〉〉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는 창회24주년을 맞이하여 본회 창회전문에 의한 단일교단의 사명과 완성을 위하여 현재 가입하지 않은 종단의 가입을 권장합니다. 단일교단으로서 연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단체 가입시 각종 회의와 연합법회의 참가 자격이 부여되며 종단 가입증명서와 대표자 추대장,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58- 6642 FAX : 02) 358-6643
• 총재 의륜 : 011-352-7751 회장 청운 : 011-726-9325
• 실무의장 법천 : 010-9015-9954 사무총장 설송 : 010-8463-1001
• 인 터 넷 주 소 : http://kbta.cafe24.com